

이세기의 예술인 탐구 22

한국 발레 역사 다시 쓴 발레리나

文薰淑

글 | 이세기 소설가 · 전대한매일 논설위원



문훈숙(文薰淑)은 춤의 여신이다. 이 시대 가장 춤 잘 추는 발레리나로서 그의 공연을 보고 나면 너무나 감동적인 나머지 관객이 보호하고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 될 문화재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그의 춤추는 모습은 흡사 바람에 날려 떠다니는 공기의 정(精),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비실체적인 이미지다. 춤출 때의 해맑은 투박함과 현란한 울동은 19세기 고전 발레의 정수인 <빈사의 백조>나 <라바야데르> <지젤>의 일면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의 안나 키셀고프가 쓴 ‘<지젤>을 누가 줄리아 문만큼 출 수 있을까’라는 평은 공연한 찬사가 아니다.

문훈숙은 1989년 러시아 키로프발레단에 발탁되어 클래식 발레 최고봉으로 일컬어지는 <지젤> 공연에서 고난도 테크닉 필루에트 36회 회전으로 동양 발레의 콤플렉스를 일시에 불식시켰다. 이후 <호두까기 인형> <레실피드> <돈키호테>에 연달아 출연했고 1995년 키로프 마린스키 극장에서 공연된 <백조의 호수> 주역을 맡아 극장을 가득 메운 발레 본고장 관객들로부터 7차례 이상의 열광적인 커튼 콜을 받았다. 25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키로프발레단으로서는 동양인 주역은 사상 처음이었고 그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르네상스를 위한 갈라텔레톤과 모스크바 크렘린 궁전·아메리칸 발레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춤추는 동양의 진주’ ‘황색 요정(妖精)’의 돌풍을 일으키면서 국제무대의 스타가 되었다.

그의 부단한 변용(變容)과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깃털 같은 비약은 지상의 것 같지 않은 눈부신 백색광을 무대 곳곳에 흩뿌린다. 어느 때는 꽃잎처럼 어느 때는 비누방울처럼 가볍게 떠다니고 장대한 포물선과 살아 있는 나선(螺線)으로 인간 영혼의 고매한 정서를 극치미로써 보여준다. 그는 “춤은 일찍부터 삶의 일부로서 나의 내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고 말한다.

1980년대 초 <신데렐라> <프로메테우스> <세레나데>

<파키타> <레퀴엠>과 유니버설발레단의 간판 레퍼토리로 지칭되는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주역이었고 특히 한국 고전 설화를 개작한 창작발레 <심청>은 86 아시안게임·88 서울올림픽 문화 예술축전을 필두로 한국과 세계 40여 개 도시에서 100회 이상 공연되었다. 에들리언 델러스 안무, 미국의 케빈 B. 피카드가 작곡한 이 작품은 외국 신문들이 ‘작품 전체에 깔려 있는 동양적인 가족사랑과 한국 효도정신을 가장 창조적으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 평하고 국내 평단에서도 ‘광복 이후 무용부문 베스트 10’에 선정하고 있다.

『LA 타임스』의 루이스 시걸은 “놀라울 정도의 정확성, 황홀할 정도로 일치된 움직임 등은 세계적인 일류 무용단조차 부끄럽게 할 정도다. <심청>의 주역을 맡은 줄리아 문은 진정한 스타”, 헝가리 『아트 오브 댄스』지는 “줄리아 문은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여 인간의 가장 고귀한 품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의 무대는 무한한 서정감과 극시적인 예술로 승화되고 있다”고 쓰고 있다. 이 작품은 1986년에 초연된 후 13년 만인 1999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경쟁력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와 함께 무용단 사상 유례없이 한국문화예술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완벽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는다

그가 우리 발레계에 끼친 공로는 참으로 지대하다. 국

문훈숙이 곧추서서 필루에트를 구사하거나 두 발을 허공에서 부딪치는 푸에테를 본 사람은 절대 완벽으로 춤추는 모습에서 그가 테크닉으로 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추는 경지에 닿아 있음을 한눈에 알게 된다. 그의 테크닉은 장면마다 명화를 연출하여 신선하면서도 진한 감동을 던져준다.

인간 영혼의 가장 고매한 정서를 표현하는 문훈숙의 춤정신

제무대에서 명성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명작 발레 공연을 통해 춤의 직업성을 투철하게 각인시킨 프로페셔널 발레리나다. 그가 스타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재능과 자기 노력, 그리고 춤 예술이 스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기민하게 파악한 유니버설 발레단의 치밀한 기획력과 무진장의 재원이 뒷받침된 때문이다. 그런 축복의 세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고, 그는 그런 의미에서의 노력이었으며,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상급을 받은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등극하면서 아메리칸 발레시어터 수석무용수 케빈 뮤켄지, 볼쇼이의 수석무용수 안드레스 리에파, 키로프발레단의 수석무용수 알렉산더 쿠르코프, 유럽 공연에서는 남미 출신 막스 밀리아노와 호흡을 맞추는 등 기라성 같은 발레 댄서들과 파트너를 이룬 경력은 세계 누구에게서도 쉽게 찾아질 수 없는 사례다. 특히 명성이 드높은 세계적인 스타 페르난도 부호네와의 <지젤> 공연에서는 직접 대사를 나누는 현실감 있는 연기를 끌어내어 '지적인 발레리나' '가장 문학적인 발레리나'로서 "그가 아니고는 한국 발레를 말할 수 없다"는 평을 듣고 있다.





1984년 유니버설발레단 창단공연 <신데렐라>에서의 주역, 패트릭 비젤과



88 서울올림픽 때의 <심청>, 상대역은 그레고리 오스본

모든 무대예술이 그렇듯이 춤은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대스타가 요구되는 예술이다. 그가 발레 학습을 받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엔 바리시니코프나 마르코바 같은 대스타들이 현존해 있었다.

문훈숙이 곧추서서 필루에트를 구사하거나 두 발을 허공에서 부딪치는 푸에테를 본 사람은 절대 완벽으로 춤추는 모습에서 그가 테크닉으로 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추는 경지에 닿아 있음을 한눈에 알게 된다. 아무리 마음으로 춘다 해도 그 춤이 아름답지 않으면 관객을 사로잡지 못하는 법이다. 그의 테크닉은 장면마다 명화를 연출하여 신선하면서도 진한 감동을 던져준다.

새로 개작된 <심청>에서 심황후가 되어 심봉사를 만나는 장면은 그것이 발레임에도 객석은 잔잔한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연극이나 영화가 아닌 춤 공연에서 관객이 눈물을 흘리는 예는 흔치 않다. 그는 <심청>뿐 아니라 <빈사의 백조>에서도 죽음을 향해 고고하게 춤추는 한 마리 새가 되어 단말마적 극선으로 관객을 숙연케 했다. 너무나 슬픈 것을 봐도 울게 되지만 관객은 아름다움 앞

에서 진정한 눈물을 보이게 된다.

발레를 좋아하는 것은 발레가 인체를 가장 이상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기 때문이며 도스토예프스키의 말대로 '아름다움은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발레는 눈으로 감상하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그의 신체적 조건과 용모와 연기는 관객을 매혹하는 데 추호의 허점도 찾아볼 수 없다. 또 <백조의 호수>나 <지젤>을 계속해서 거듭 보고 싶은 것은 주역들이 그 역할을 그때마다 어떻게 다르게 수행하는가, 그 장면에서 그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테크닉을 만끽하고 싶어서다. <심청>이 무대 위에서 영원히 공연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만의 간절하고 호소력 짙은 춤연기 때문이며 그가 <빈사의 백조>를 춤추기를 원하는 것은 긴 목선과 긴 팔, 젖은 듯한 긴 속눈썹 아래 애절하게 치달아 오르는 춤의 비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 <호두까기 인형>의 디베르티스망은 지금도 그가 나와야만 관객들이 환호성을 지른다.

2000년 유럽 순회공연 도중 문훈숙은 발을 다쳤다. 발을 다친 채 그 해 3월 미국 공연을 강행했고, 같은 해 가



‘(지젤)을 누가 줄리아 문만큼 출 수 있을까’의 아라베스크

을 다시 유럽 공연에 나서는 바람에 발에 무리가 생겼다. 그러다가 2001년 개작한 <심청>이 유럽 공연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후 다친 다리를 수술하면서 그는 6개월간 무용을 쉴 수밖에 없었다.

“쉬는 동안 얼마나 편한지 처음엔 좋았으나 무용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두렵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무대에 서는 것은 고통스러운 작업이긴 하지만 땀을 흘리면서 음악과 하나가 되었을 때의 성취감은 어떤 다른 기쁨에도 견줄 수 없다.”

그의 무대는 그만큼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으면 그는 용납하지 않는다. 언젠가 한 후배의 공연에 갔다가 무대에서 엉덩방아를 찧고 실수하는 것을 보고 그는 크게 놀란 적이 있다고 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후배가 “다음에 잘하면 된다”면서 천연덕스럽게 웃는 것을 보고 빈틈없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면서 자신을 괴롭혀온 자신을 한 번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결론은 무신경과 속수무책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피나는 훈련으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 관객에 대한 예의이며 프로 정신이라고 믿고 있다.

막이 오르기 직전마다 떨리고 설레는 극도의 긴장감 때문에 그는 곧잘 어디론가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진다고 말한다. 한 순간의 실수가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스트레스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그러나 일단 막이 오르고 나면 장면이 바뀔 때마다 기쁨이 고조되어 최고의 흥취에 도달한 품격이 무대에 도사린다. 그는 무용가로서 항상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왔고 자량과 오만보다 회의와 자학과 고통 속에서 춤춰왔다.

그에겐 성공과 야무진 명성만이 최상인 줄 알았으나 끝없는 좌절과 좌절을 딛고 이긴 극기심과 자기반성이 세계적인 무용가로 발전시킨 것이다. 연이은 유럽 공연 후 2001년 말 러시아 명예 친선대사로 위촉되었고 러시

아 모스크바 국립예술대학에서 무용예술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해는 바로 미국 오하이오발레단 솔리스트로서 직업 발레리나가 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서 그는 모처럼 휴가를 얻어 아들 신철과 미국 여행에 다녀왔다. 그만큼 그에겐 개인적인 시간이 없었다. 미국에 가서 38세의 나이에 “생전 처음 스키장에서 눈을 밟아보았다”고 할 정도다.

단원들이 마시던 커피 잔 거둬 씻는 따뜻한 단장

문훈숙은 1963년 1월 25일 미국 버지니아에서 태어났다. 한국문화재단 총재 박보희와 윤기숙의 3남 3녀 중 넷째. 변호사인 언니 박나경과 작은오빠(진성), 남동생(진경), 여동생(연숙)은 미국에 거주하고 큰오빠 박준선은 한국에서 케이블 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여섯 살 때 발레를 시작해서 1974년 워싱턴 체스터스브룩 초등학교 재학 시절 리틀엔젤스무용단에 합류하여 세계 순회공연에 나섰다.

여린 걸모습과는 달리 강인한 정신력으로 뭉쳐 있는 그는 부친 박보희와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다. 박 총재는 군 장교 시절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해서 국제 문화예술계에서 폭넓게 활약하는 걸출한 실력파다. 문훈숙도 미국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선화여중에 입학했을 때는 부사 하나도 제대로 구사할 줄 모를 만큼 한국어는 낯선 외국어였다. 영한사전과 한영사전을 놓고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동안 그는 밤에 졸게 될 것을 염려해서 칠판을 세워놓고 칠판에다 글씨를 쓰면서 서서 공부할 만큼 독한 면이 있다.

발레 레슨은 선화여중에 와서 아메리칸 발레시어터 단원이던 애들리언 델러스와 키로프발레단의 수석안무가이자 예술감독이던 올레그 비나그라도프 등에게 사



2001년 러시아 명예대사 임명과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 명예박사학위를 받고(왼쪽부터 문훈숙, 파루닌 러시아 의장, 키셀로바 모스크바 국립대학 총장 등)



리틀엔젤스 단원 시절 왼쪽 아버지 박보희, 오른쪽 어머니 윤기숙

사, 스승들은 키로프발레단의 전설적인 발레리나 바가노바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몸의 선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조명이 비칠 때 그림자가 어떻게 저야 하는가' 등 세부적인 테크닉을 본격적으로 가르쳤다.

17세 되던 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스위스 로잔 발레 콩쿠르에 입상하고 나서 1979년 영국 로열 발레학교에 유학했다. 영국은 거만하고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데다 연일 비가 내리는 날씨도 체질에 맞지 않아 한때 발레를 그만두고 싶다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모나코 왕립 발레학교에서 세계적인 발레리나 마리카 베소브라소바를 만나 날카로운 테크닉과 철저하고 혹독한 훈련을 극복한 끝에 '발레리나는 즐기기보다 보여주기 위해 최고로 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터득할 수 있었다.

1981년 미국 오하이오발레단을 거쳐 워싱턴발레단에서 솔리스트로 활약하다가 1984년 유니버설발레단이 창단되면서 수석무용수가 되었다. 21세 되던 해 문선명 통일교 교주의 차남인 문흥진(文興進)과의 영혼결혼식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일이다.

결혼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1991년 겨울, 약혼자가 교통사고로 타계하자 "인생은 영원할진대 지상에서 못다한 백년해로 천국에서 하겠다"며 영혼결혼을 감행했고, 그의 이름 박훈숙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따서 문훈숙을 사용하게 되었다. 국제무대에서는 통상 '줄리아 문'으로 불리고 있다.

그는 영혼결혼에 대해 "서로가 잘 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강조한다. 매스컴이 '만약 운명적인 천상의 사랑이 존재하고 그것이 오로지 춤으로만 표현될 수 있다면 그것은 <지젤>에서의 줄리아 문'이라고 평한 것은 이런 맥락이 비춰져 있다.

그라고 해서 왜 힘들 때가 없었겠는가. 그도 인간이고 예술가인 이상 그리움과 애상에 대해 누구보다 깊고 크게 고민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의 공연을 보고 동작 하나하나에 실려 있는 강렬한 삶의 의지에 감명받는 것은 '내세를 믿는 사람들에게 땅 위의 삶은 한낱 화살 같은 것, 그래서 그의 <지젤>은 남편에게 온몸으로 바치는 추모의 염'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훈숙은 현재 유니버설발레단 단장이다 선화학원 이사장, 한국문화재단 부이사장이다. 성동구 능동에 있는 발레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은 아침 9시. 행정적인 업무를 본 뒤 오전 11시부터는 다른 단원들과 함께 클래식 실기수업을 받고 평균 7시간 정도의 연습을 하고 있다. 요즘은 작품지도와 행정적인 업무가 토요일까지 계속되지만 어릴 때부터 기숙사 생활이 몸에 밴 독립심 강한 기질로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끝까지 집념으로 매달리는 형이다.

그는 단장이기에 앞서 무용계의 선배로서 단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지를 일일이 따뜻하게 챙겨주는 세심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단원들의 상담도 일과의 하나다. 아직 소녀 티가 가시지 않은 청순한 생김과는 달리 전혀 까다롭지 않아 단원들이 마시던 커피 잔을 거둬 씻거나 어질러진 소품을 일일이 점검해서 정리하기도 한다.

그가 소속한 유니버설발레단 단원은 65명, 전세계 100여 개국에서 그 동안 1천 회를 상회하는 공연으로 한국 발레 수준을 격상시켰고 공연에 나설 때마다 각국 주요 매스컴들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등 정부의 지원이 없는 민간단체로서 국립발레단을 넘어서는 괄목할 만한 업적들을 남기고 있다.

1999년 헝가리, 이탈리아, 스페인과 지난해 11월 그리스의 볼로스, 베리아, 테살로니키 등 3대 도시에서 공연된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은 그 전해 <심청>에



〈레실피드〉에서 현재 아메리칸 발레시어터 예술감독 케빈 뮤겐지와

서 그랬던 것처럼 예매 3일 만에 매진되는 흥행성적을 거두고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공연이 끝날 때마다 기립박수로 '브라보'를 외쳤다.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무대에 올리는 <호두까기 인형>은 올해도 예외 없이 만원사례를 기록, 표를 구할 수 없을 만큼 국내와 유럽 등지에 고정관객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2002년)의 경우 한국에서의 정기 공연이 8번, 외국 공연이 4차례나 있었다. 상반기에 <동물의 사육제 & 문훈숙과 함께 이야기하는 발레>를 시작해 5월 어린이날 어린이 초대공연에서 직접 해설을 맡았고, 6월에는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새로운 안무로 세계 초연하여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의 의도를 고스란히 살렸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제작비 7억원 중 무대의상비 5억원, 무대장치만 25톤 트럭으로 29대 분량이다.

이 작품은 내년 3월 프랑스에서 순회공연 예정이다. 그리스 공연에서 돌아오자마자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호두까기 인형> 공연을 비롯해 장애자를 위한 무료 공연, 서울 공연이 끝나자 군포, 창원 등 지방 공연에 다녀왔다.

『뉴욕 타임스』는 유니버설발레단 공연에 대해 “러시아 키로프발레단 스타일과 동양적 우아함을 동시에 보여주어 위기에 처한 고전발레를 부활시켰다.

우리가 알기로는 낭만적인 정신은 19세기 말 샤토 페테르부르크 발레학교만의 독점적이고 유일한 스타일이었으나 20세기 말 한국의 유니버설발레단이 그것을 새롭게 보여주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전예술과 문화의 본고장인 ‘유럽 순회공연의 성과는 한국 무용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국내에서도 이를 크게 보도한 바 있다.

새로 준비하는 창작발레는 <춘향>. 하나의 창작발레가 탄생되기 위해선 대본에서 안무·음악·연출·미술·음향·조명·의상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이를 준비 중에 있다.



1989년 러시아 키로프 마린스키 극장에서 <지젤> 공연 후 팬들에게 사인



유니버설발레단 창단 10주년 공연 〈잠자는 숲속의 공주〉

2004년 이후 후배양성, 발레단 운영에 몰두할 계획

스타는 아름답고 그들의 감정은 관객을 변화시킨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안나 파블로바, 알리시아 마르코바 같은 신화적인 무용수를 섬모하고 마고트 폰테 인처럼 58세가 되어도 춤추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발레예술은 한국 무용과는 달리 바로 그 아름다움과 마음으로 추는 테크닉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 나이 사십이 넘으면 후배양성과 발레단 운영에 몰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장 그만두어도 좋지만 어떻게 오랜 친구들과 작별 인사도 없이 그만두겠어요?”

때마침 2004년은 유니버설발레단 창단 20주년이 되는 해로 그는 그가 사랑했던 〈지젤〉 〈백조의 호수〉 〈돈키호

테〉 〈라바야데르〉 〈레실피드〉 등 옛 친구들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작별을 고하는 공연으로 그의 무대를 마무리 짓고 싶어한다.

“우리 유니버설은 그 동안 작품 쪽에만 집중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에는 거의 투자가 없었습니다. 작품은 같고 댄서 완벽을 기할 수 있지만 발레단의 위상을 빛나게 하려면 행정 분야에 크게 비중을 뒀야 해요. 물건을 팔아도 이것을 포장하고 홍보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동안 포장도 하지 않고 홍보도 잘 하지 못했어요. 전문적인 인사를 초청해서 이 일을 해내려고 합니다.”

다른 춤추는 사람들이 곧잘 사교적인 모임에 나서고 나이 들면 권위의식을 내세우는 것과는 달리 그는 고국에 정착할 때와 다름없이 겸손하고 수줍고 낮설어하면서 자기 겸양을 지킨다. 드넓은 교제범위를 갖진 않으나

1. 공연이 끝나고 나서 아들 신철과 함께
2. 러시아 키로프 마린스키 극장 앞에서
키로프발레단 예술감독 올레그 비나그라도프와
3. 워싱턴 체스터스브룩 초등학교 1학년(7세)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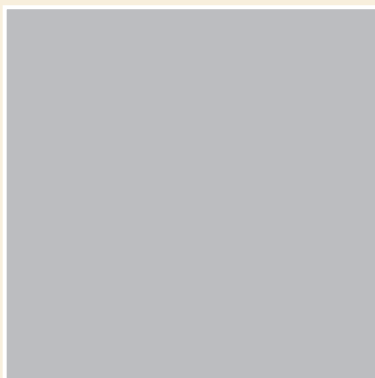
전 국립발레단장이던 최태지, 김인희와 자주 만나 친분을 쌓고 후배인 강수진이 외국생활의 외로움과 술한 경쟁을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발레리나가 되자 1996년 6월, 한국에서는 가장 먼저 강수진을 초청하여 <지젤>의 주역으로 세웠다.

지난해 최태지가 국립발레단을 그만두었을 때도 “그렇게 일 잘 하고 춤 잘 추는 인재가 외면당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누가 감히 <스파르타카스>를 공연한다는 꿈이나 꾸겠어요? 최태지 씨가 아니면 가능하지 못했지요.”

그 동안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들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아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가 서툴렀으나 어디서나 자신의 의사 표시를 정연하게 전개할 줄 안다. 그래서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말하고 동료들을 포용하는 관대함과 의리심을 보인다.

그는 시부모와 함께 용산구 한남동에 살고 있다. 시부모는 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아들 신철과 살면서 평소에는 요가와 명상으로 일과를 보낸다. 아들은 올해 11세로 외국인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아들의 성격은 ‘집안의 내력에 따라 개성이 강하고 고집이 센 편’이지만 엄마가 속상해하면 엄마를 얼싸안고 위로할 만큼 정이 많고 정의롭다. 미식축구에도 농구를 즐기고 앞으로의 꿈은 어엿한 하버드 대학생.

발레는 상상하지 않는다. 공연이 있을 때는 직접 꽃다발을 가져와서 엄마에게 드리고 사진도 찍는다. 작년까지만 해도 말을 듣지 않아 싸우기도 했지만 올해는 “죽



었다 깨어나도 안 하겠다고 하던 한문공부를 시작했다”
고 자랑한다.

“아들은 나를 너무나무 좋아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공연에 가고 그 외엔 대부분 신철이와 지내요. 내가 한
아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아들을 키우는
데 대한 보람과 감동을 느낍니다. 나라는 인간을 믿는
절대적인 사랑이 있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아이가 나
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은 바
라지 않아요. 아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정성껏 돌보는 일
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휴일이면 그는 자전거를 타고 신철이는 롤러스케이트
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기도 한다. 비디오 가게에 가
서 비디오를 빌려오거나 둘이서 피자집에 간다. 아이가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밤새워 이야기를 해주고 앙드
레 가봉, 유리코 나카무라 등 편안한 음악을 들려준다.
남들이 사치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과는 달
리 정장보다 바지 차림을 즐기고 백화점보다 새벽 동대
문시장에서 옷을 고를 만큼 소탈하다. 식사는 다른 발레
리나들처럼 소식, 아침엔 주스 한 잔, 점심은 비스킷 한
조각이나 과일, 저녁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다.

“발레는 몸이 악기이고 신체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
는 예술이지요. 발레리나는 마른 사람이 무대에서 보기
좋아요. 몸매의 선이 중요할 뿐 아니라 살이 붙면 원하는
동작이 나오지 않고 점프도 수월치 않게 됩니다.”

그는 심성이 곱고 섬약해 보이지만 가슴속에는 불덩
어리 같은 정열이 숨어 있고 은근한 카리스마로 사람을

설득하는 힘도 만만치 않다. 누군가 문훈숙을 향해 그가
만약 유니버설이라는 왕국의 배경이 아니었다면 그의
탁월한 재능과 미모와 기량은 좀더 세계적으로 눈부시
게 도약했으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의 노
력과 지혜로움은 이를 뛰어넘어 ‘줄리아 문의 세계’를
탄탄하게 확보한 것이다.

미국의 무용평론가로서 신문에다 댄스 리뷰를 쓰는
안나 키셀고프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발레리나 중에
서 발레리나의 조건을 고루 갖춘 예술가로 그를 손꼽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과연 그 같은 발레리
나가 또 한 명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마도 많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그는 지금도 무대에 서면 백조의 깃털처럼 가볍게 비
행하고 천상의 꽃발을 수놓는 나비처럼 부드럽게 날아
다닌다. 단지 이제는 처연한 빈사의 백조가 아닌, 새봄
을 맞는 희망과 설렘과 변화가 보이는 힘의 백조로 다
시 태어나고 있다.

그의 새로운 변신과 선화까지도 그는 춤의 상징이며
그래서 관객이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의 영
원한 프리마 발레리나다. 🌈

이세기 약력

- 이화여대 및 대학원 졸업
- 『조선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현대문학』 소설 추천
- 『서울신문』에 '이세기의 인물탐구' (1992~1999) 연재
- 『대한매일』 논설위원, 본지 편집자문위원 · 한국간행물위원회 심의위원
- 창작집 『바람과 놀며』, 『그 다음은 침묵』, 김옥길 평전 『자유와 날개』 외
- 현대문학상 · 서울언론인클럽 신문칼럼상